

“펜트하우스 만나고 연기 자신감 생겼죠”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말 못할 고통을 잘 전하고 싶었어요.”

매회 반전을 거듭한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 극중 극한의 변화를 겪은 인물이라면 많은 시청자가 유제니 역 진지희(22)를 떠올릴 것이다. 어른들 세상 못지않게 갈등이 치열한 청아예고 학생들 사이에서 발랄한 매력을 뽐냈던 그가 시즌2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은 장면이 없을 정도”로 확 달라졌다. 왕따를 당하는 동급생 김현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학폭’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방송 시기 연예계에도 관련 논란이 휩싸였다. 5일 화상으로 만난 진지희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이왕 하는 것, 피해자들의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잘 전해보자 결심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학부모 앞에서 원형탈모와 학폭 피해를 고백하는 오열 장면도 그렇게 탄생했다. 이는 시즌2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뽕꾸뽕꾸 이미지 덕분에 지금 내가 있어 펜트하우스 열혈팬들 응원에 큰 힘 얻어 학폭 피해자들의 고통 잘 전하고 싶었죠 시즌3선 제니가 캠퍼스로맨스 펼쳤으면”

로 여유를 되찾았어요. 아역은 저와는 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시간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부담감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소재로 고민이 많았겠다.

“몸 사리지 말자 싶었어요. 다만 지나치게 잔인하게 비치지 않기를 바랐죠. 그래야 제니의 아픔에 보는 시청자가 더 공감하리라 생각했어요. 최근 학폭 논란에 저도 안타까웠고, 스스로를 자주 돌아봤어요. 학폭은 어디서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펜트하우스’는 어떤 의미인가.

“정말 든든한 작품이에요. 감사한 기회였죠. ‘배우로서 계속 가고 되나?’ 생각이 들던 찰나에 만나 시청자 응원을 듬뿍 받으며 큰 힘을 얻었어요.”

-2003년 데뷔 이후 연기를 접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2~3년 전, 배우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배우라는 직업과 연기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2018년 동국대 연극학부에 입학해 연기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 있죠. 이렇게 끈기 있게, 행복하게, 열정을 다해 할 수 있는 걸 연기 말고는 못 찾았어요. 새삼 깨달은 행복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09년 ‘지붕뚫고 하이킥’ 이후 부담감이 컸나.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단호하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선 ‘뽕꾸뽕꾸’ 이미지를 벗으려면 더 유명한 작품에 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했죠. 그때부터 흔들리고, 촉박해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1~2년 정도 대학생활

-학과 1등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내는 면모도 있어요. 오기가 발동해 ‘올A’를 맞기도 했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잘 자랐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시청자들이 어디선가 날 지켜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심한 것도 있지만, 대중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배우가 목표이기에 더욱 노력했죠.”

-시즌3에 대해 살짝 귀뜸해 달라.

“저도 아직 몰라요! 배우들 모두 매회 대본을 깜짝 놀라면서 볼 정도인 걸요. 다만 시즌3에선 그만 알고 싶어요. 희망사항이지만, 제니가 캠퍼스 로맨스를 펼치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진지희가 최근 SBS '펜트하우스2'를 끝내며 "연기와 실제의 나 모두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얘기했다.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공유 박보검 주연 '서복' 해외 56개국 선판매



공유·박보검 주연 영화 '서복'이 해외 56개국에 선판매됐다. 5일 투자배급사 CJ ENM은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서복'의 배급 판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15일 한국과 함께 영화를 동시 선보인다. CJ ENM은 “한류스타 공유와 박보검의 만남, 복제인간이라는 참신한 소재” 등이 해외 관객에게 소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과 그를 지키려는 전직 정보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15일 극장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에서 동시 공개된다.

박수홍, 내일 '라디오스타'서 친형 언급 할까



개그맨 박수홍이 7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자신의 매니저였던 친형과 별이고 있는 금전적 갈등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향한다. 그동안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온 많은 연예인이 자신들의 사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어 박수홍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5일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자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상대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친형 측은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탄소년단 '봄날' 뮤직비디오 4억뷰 돌파



그들 방탄소년단의 2017년 노래 '봄날' 뮤직비디오가 공개 4년여 만에 유튜브 조회수 4억뷰를 돌파했다. 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봄날'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0시37분께 조회수 4억건을 넘어섰다. '봄날'은 방탄소년단이 2017년 2월 선보인 앨범 '윙스 외전: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DNA'를 비롯해 모두 11편의 4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슈주·마마무 등 무대

최근 정규 10집을 내놓은 슈퍼주니어를 비롯해 마마무, 펜타곤 등 스타급 아이돌 그룹이 대거 부산으로 향한다. 이들은 5월6일 개막해 9일까지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무대에 선다. 이미 출연을 확정된 NCT DREAM, 더보이즈 등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부산관광공사가 개최해 '글로벌 한류페스티벌'을 표방하는 축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지난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올해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대를 연다.

이소라·성시경, KBS Joy '실연박물관' 진행



모델 이소라와 가수 성시경이 MC 호흡을 맞춘다. 두 사람은 5월 KBS Joy의 새 토크프로그램 '실연박물관'을 함께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사연자의 물건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와 함께 공감과 위안을 나누는 토크쇼이다. 이소라와 성시경은 '공감 큐레이터'로서 무대에 나서 사연자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역할에 나선다. 두 사람은 이미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입담을 과시하며 진행자의 재능을 과시해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전여빈, 독종 변호사에 총기 액션까지...연기 영역 확대

영화 '낙원의 밤' 9일 넷플릭스 공개

연기자 전여빈이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빈센조'와 영화 '낙원의 밤'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개성 넘치는 매력이 존재감을 더하면서 해외무대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전여빈은 9일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낙원의 밤'에서 무기상의 조카 역을 맡았다. 가족에 얽힌 아픔을 간직한 그는 조직에 쫓기는 남자 임태구를 만나면서 변화를 겪는 인물이다.

남성 캐릭터 위주의 누아르 장르에서 전

여빈은 극중 남다른 힘을 발휘한다. 화려한 총기액션도 소화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키워온 누아르 영화에 대한 환상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며 “총을 잘 쏘는 역할을 위해 촬영 전부터 사격연습을 부지런히 했다”고 밝혔다.

'빈센조'로는 악덕기업인 바벨그룹에 맞서는 독종 변호사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코믹함과 카리스마를 오간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위장잡임도 서슴지 않는 대담한 모습으로 시청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초반부 ‘코믹 연기가 다소 어색하다’는 평가도 이제 말끔히 지운 분위기다. 특히 최근

상대역인 마피아 변호사 송중기와 진한 키스 장면까지 소화하며 4일 시청률 11.3%(닐슨코리아)까지 끌어올렸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시선도 사로잡고 있다. 역시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는 '빈센조'를 통해 한류스타 송중기의 파트너로서 해외 팬들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 '낙원의 밤'이 지난해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으면서 해외에 얼굴을 알리는 계기를 맞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낙원의 밤 전여빈

레드벨벳 웬디, 7년만에 첫 홀로서기

솔로 앨범 '라이크워터' 5곡 수록 로제·백현 등 또래 아이돌과 경쟁

그룹 멤버와 솔로의 경계선, 그 사이를 오가며 전혀 다른 모습이길 원한다. 무대 위에 나서는 아이돌 가수의 고민이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도 데뷔 7년만에 홀로서기를 하며 오랫동안 거머쥔 버텨지지 못했다. 솔로가수로 각종 드라마 OST를 통해 팬들과 만나왔지만 “유난히 부담됐다”고 돌아섰다. 레드벨벳 멤버 가운데서도 첫 솔로 주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2019년 12월 SBS '가요대

전' 무대 리허설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한 후 솔로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도 그의 새로운 도전은 눈길을 끌 만하다.

웬디는 5일 첫 번째 솔로 앨범 '라이크워터'(Like Water)를 내놓고 진솔한 메시지와 따뜻한 감성을 선보였다. '빨간 맛' '아이스크림' '피카부' 등처럼 레드벨벳의 특색 있는 노래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앨범 동명 타이틀곡 '라이크 워터'는 웬디의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어쿠스틱 팝 발라드곡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물에 비유했다. “사람이 사는 데 물이 없으면 안 되듯,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메시지”라



레드벨벳 웬디

는 설명이다. 웬디는 이날 “그룹의 일원으로서 팀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앨범은 내 이야기와 가깝고,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어 온전히 내 목소리만으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외에도 레드벨벳 멤버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슬기와 부른 듀엣곡 '베스트 프렌드'(Best Friend), '작사'하는 설렘을 담은 '와이 캔트 유 러브 미'(Why Can't You Love Me?), '초행길' 등 5곡을 수록했다.

웬디는 이번 활동으로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또래 아이돌 가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블랙핑크의 로제, 엑소의 백현, 세븐틴의 호시 등 글로벌 아이돌 멤버들의 솔로 컴백 대열에 합류해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웬디는 “솔로가수로서는 이제 시작인만큼 온전히 저만의 색깔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수로서 그 역할을 팬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